

전주세계문화주간 호주문화주간 운영

8일까지 전주한옥마을·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전역서 호주 오감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호주 문화의 정수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6일간 전주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전역에서 '2025 전주세계문화주간-호주문화주간'을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 행사는 주한 호주대사관과의 협력으로, 호주 출신 스타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방송인 샘 해밍턴의 유쾌한 진행하에 호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마쉬와 전주시 노빌레 앙상블, 소리꾼 노은실과 해금연주자 꾸미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는 이날 개막식에서 "이름다운 도시 전주에서 호주의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이번 협력은 130여 년을 이어온 호주-한국 양국 관계의 돈독한 미래를 상징한다"면서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를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6일간 전주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전역에서 '2025 전주세계문화주간-호주문화주간'을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호주의 영화와 음식, 음악, 예술놀이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장 한국적인 맛이 살아있는 전주에서 만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는 주한 호주대사관 측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에서 호주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길 바라며, 전주와 호주의 우정과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수상에 빛나는 호주 애니메이션 '블루이' 가족의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샘 해밍턴의 '영어로 읽는 블루이' 북리딩 △조셉 리저우드와 함께하는 '블루이 쿠킹클래스' △호주와 전주의 작가들과 함께하는 'Imagine World-호주담 놀아요! 예술놀이 워크숍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풍성한 체험이 마련됐다.

또한 호주식 브런치 카페에서는 호주식 아이스커피와 '오지버거' 등 특별한 메뉴도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호주문화주간에는 전주국제영화제와 맞물려 세계적인 영화비평가인 호주 출신 에이드리언 마틴이 올해의 '게스트 시네필'에 참여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과 인스타그램(@jonju_australia), 주한호주대사관 인스타그램(@ausembkorea)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863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그간 각종 대사관 및 문화원, 기업 등과 협력한 세계문화주간을 통해 해마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공공의료를 추진해왔다. /권희성 기자

디지털 융합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개 교육과정 운영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인공지능)와 영상 등 디지털 융합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디지털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지원하는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AI) 융합기반 웹&앱 전문개발자 양성과정'과 '디지털 영상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2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AI) 융합기반 웹&앱 전문개발자 양성과정'은 오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운영되며, △Programming Fundamental △Android 앱 개발 △AI Project 실무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양성과정'의 경우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며, △Premiere Pro △카메라 촬영 △디지털 마스터링 △After Effect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이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지역 내 디지털·영상 관련학과 졸업생과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미취업자, 실직자, 비전공자 등으로, 진흥원은 교육과정별로 10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진흥원 누리집(www.jica.or.kr)과 J-디지털교육관리시스템(jedu.jica.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부 양식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디지털(AI) 융합기반 웹&앱 전문개발자 양성과정'은 오는 12일까지, '디지털 영상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19일까지다. /권희성 기자

서신동 통장협의회, 저소득 가정 대상 편의점상품권 기탁

전주시 서신동 통장협의회(회장 김금순)는 어린이날을 맞아 서신동주민센터(동장 김은성)를 방문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60만원 상당의 편의점상품권을 기탁했다.

서신동주민센터는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받은 서신동 통장협의회회 상품권을 저소득 가정 아동 20명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서신동 통장협의회는 매년 명절에 저소득 가정에게 성금을 기탁하고, 겨울철에는 김장 나눔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나눔을 진행한 김금순 서신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 어갈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이어갈 수 있게 응원하겠다"라면서,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성 서신동장은 "평소에도 통장협의회는 이웃사랑 나눔에 적극적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는데,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보여주시는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어린이날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전주 놀이주간 다채롭게 열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주시역 아동과 부모 등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모범 어린이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봉사과 예능, 체육, 과학기술, 요령 분야의 모범 어린이 14명과 아동복지유공자 8명 등 총 22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표창 대상 어린이 중 남녀 어린이 대표가 어린이 헌장을 낭독했으며, 케이팝 댄스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또한 시는 이날 노송광장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 놀이주간'도 함께 운영했다.



이날 놀이주간 행사에서는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박 터트리 기 퍼포먼스 △놀이마당 △체험·홍보부스 △부대행사 등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놀이마당에는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점들을 이용한 '점발놀이' △한글이 가득한 '점발놀이' '에어비온스' △인사이드 아웃의 '점발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기에 스페이스페인팅 △세상에 하나뿐인 인형 키링 만들기 △내맘대로

꾸미는 시원한 부채 만들기 △소중한 가족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탄소중립 실천 교육 △전북은행 금융교육 캠페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인권 홍보 부스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마술쇼 △버블쇼 △습사탕쇼 △공선쇼가 시간대별로 운영돼 놀이주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답게 아동들의 참여권 및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정책참여단 운영 △극대 어린이 마라톤대회 개최 △놀이주간 운영 등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맘껏 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운동유 부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행복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 가입자 모집

전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정부지원금 10만원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사업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며,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8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차상위 이하 유형의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 소득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차상위 초과 유형의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주요 도로·보행 환경 개선 위한 사업 추진

전주시가 노후 차선 및 교통안전시설물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올해 총 13억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차선도색과 무단횡단금지시설·시선유도봉 설치·보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노후된 차선과 횡단보도 등의

시민성을 개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선도색 및 지우기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운전자의 주황 안전을 확보하고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단횡단금지시설 및 시선유도봉 설치·보수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성'이라고도 불렀다. 완성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